

##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9, 계시록 21장, 신부 새 예루살렘 계속.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9강 신부 새 예루살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환상의 마지막 절정 부분의 일부로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이 실제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요한이 그 도시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요한은 그 도시를 주로 사람들 자신을 위한 상징으로 보는 것이지, 새  
창조에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도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 그것은 존의 목적이나 요점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신약성서의 저자들처럼 사람들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건물이나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요한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시작하여 21장을 나누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요한은 먼저 그 도시의 구성과 기초와 문에 이르는 여러 부분과  
같은 도시의 모든 건축학적 특징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의 측정도  
마찬가지다. 그런 다음 22절부터 시작하여 21절까지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건축의 돌이요 성전을 이루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22절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이  
마지막 때의, 최종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여러 이미지를 병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부의 언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 언어이면서 동시에 사원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고 우리는 22절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에덴동산, 즉 낙원으로의 복귀 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낙원의 회복과 갱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구성에 관한 몇 가지 특징으로 돌아가려면 에스겔서와 아마도 스가랴서에서 다시 나오는 도시의 치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2도 그렇고. 앞서 말했듯이 스가랴 2장에서는 성읍을 측량한 반면, 요한이 사용하는 주요 모델인 에스겔 40~48장에서는 성전 자체를 측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존의 요점이다. 그는 도시를 성전으로 묘사하고 그 안에 별도의 성전이 없는 것을 원합니다. 곧 살펴보겠지만요. 그러나 요한은 에스겔의 측량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요한이 성전의 측량을 묘사하기 위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그린 처음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보존되고 보호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지만, 성전의 일부는 측량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쫓겨났으며, 이는 교회가 여전히 박해를 받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요한도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측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아이디어 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11장의 경우였습니다. 그곳에서 측량하는 것은 보호와 보존을 의미했으며 아마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로부터의 보호나 그와 유사한 측면에서 보존을 의미할 필요는 없고, 단지 새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보존과 영원한 안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측정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도시의 사람들의 규모와 규모, 즉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측정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도시를 상상하거나 생각한 다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새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지 추측할 수 있는 건축 청사진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아니요, 치수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안전과 새 창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크기와 정도를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것은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건축 청사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도시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제안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요한은 신부 예루살렘을 보러 간다는 말과 그가 본 것과 여기서 보여 주고 성으로 묘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도시의 측정에 의해 더욱 뒷받침됩니다.

여기에서 읽은 모든 치수, 즉 성 자체, 너비와 길이와 너비는 지성소를 암시하므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인 지성소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성전 모양의 정사각형이며 마지막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인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다른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이 측량해 보니 우선 12,000스타디온이므로 길이와 너비가 12,000스타디온이고 성벽의 길이가 144큐빗입니다.

그것이 벽의 높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벽의 두께를 번역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벽이 도시의 크기에 비해 불균형해 보이는 것이 다소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숫자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유일한 숫자인 이 두 숫자는 모두 12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숫자인 12,000은 단순히 12 곱하기 1,000이 됩니다. 즉 1,000은 큰 어림수이므로 이제 12를 곱하면 12,000, 12가 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12,000은 종말론적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규모와 온전한 백성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기에 12 곱하기 1,000 이라는 숫자로 상징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44큐빗이라도 벽의 두께나 높이에 관계없이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숫자 12를 사용하는 것은 도시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건축학적 차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숫자와 함께 일하여 이제 새 창조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위대함 속에서 안전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경기장과 큐빗 단위의 측정도 기록해 두십시오.

경기장은 대략 200야드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시각적 또는 문자적 차원으로 볼 때 높이와 너비가 대략 1500마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치수는 1큐빗입니다. 성전에 사용된 치수는 약 18~48입니다. 길이는 20인치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단순히 그 당시의 일반적인 측정값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 1500마일의 높이와 폭과 길이 등을 지닌 도시의 거대한 크기는 저자가 문자 그대로의 도시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성된 사람들을 상상하고 있다는 이 비전의 상징적 성격을 다시 한 번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 창조에 들어가신 하나님 자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의 거대한 차원과 숫자 12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9에서 그는 이미 사람들인 신부를 도시 자체와 동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 전체, 그 도시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특히 에스겔서 48장을 택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들을 보지만 40-47장에서 그의 환상은 회복된 마지막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 모든 성전 이미지를 도시 전체에 적용하여 그 도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나타냅니다. 다르게 보는 방식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지만,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홍해를 거쳐, 광야를 거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의도 자체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결국 성전. 그러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시며 그가 그들 가운데 성막에 거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성전 백성 안에 거하심으로 마침내 출애굽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강조한 또 하나의 특징은 도시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측량하는 막대마저도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로 금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측량하기에 적합합니다. 이것 뒤에는 아마도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 중 하나는 분명하고 다른 하나는 아마도 조금 더 미묘할 것입니다. 하지만 21장과 22장의 다른 부분, 특히 22장,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이 연결이 더 명확해집니다. 내 생각에는 도시를 금으로 묘사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구약성서의 성전이나 성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성막 건축의 기사를 읽을 때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 가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기사를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금은 성전 건축에 사용된 중요한 금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모든 것이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시 한번 금으로 묘사함으로써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건축적 특징이 아닙니다. 저자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성전이요, 거룩한 공간이요, 거룩한 거처로 묘사하고 싶다. 그러나 더욱이, 나는 더 미묘하게도 여기의 금이 에덴동산에서 발견된 금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금과 에덴동산 사이를 연결하는 몇 가지 다른 텍스트, 다른 유대인 텍스트, 묵시적인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2장에서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동산에 물을 주는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 이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4개의 상류로 분리되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다.

그 길은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휘감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금이 좋은 것을 보십시오. 방향족 수지와 오닉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월라는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과 관련하여 이제 금과 다른 귀중한 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수준에서 귀중한 보석과 금은 모두 요한이 제시하는 방식 중 하나이거나 도시 성전을 회복된 에덴으로, 에덴 동산으로 묘사하는 요한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섹션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실제로 조금 더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1절부터 5절까지는 에덴동산과의 연관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펴보고 싶은 다음 부분, 즉 성의 구성, 성의 건설, 그 특징과 치수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은 19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장 끝까지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14절에서 다시 언급한 성벽의 기초석은 다음과 같이 꾸몄습니다. 모든 종류의 보석.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수요 넷째 녹보석이요 다섯째 홍마노요 여섯째 홍옥수요 일곱째 황옥이요 여덟째 통이요 아홉째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 청옥이요 열두째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큰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았습니다. 그 성에서 나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그 성을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화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문은 낮에도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가 그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여기에 기초석이 자세히 열거되고 설명되고 식별됩니다.

우리는 14절에서 기초를 열두 사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제 기초 슬래시 사도들은 12개의 돌로 더욱 식별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돌이 사도들을 대표하거나 새 예루살렘의 반석이나 기초를 형성한 사도들을 상징하고, 이것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위에 세워진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이며, 어린양의 사도 위에 세워진 다국적 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제 질문은 왜 요한이 기초 사도들을 묘사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열두 기초석에 속하거나 이를 구성하는 돌을 열거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합니까? 열두 돌은 무엇을 상징하거나 암시하는가? 그리고 저는 몇 가지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John이 이 중 하나만 의도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John이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와 공감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내 생각에는 매우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구약성서와 기타 유대 문학, 묵시문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연관성을 지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분명한 것은 돌이 단순히 도시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곳을 순결한 장소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그곳을 비용이 많이 드는 장소, 비용이 많이 들고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 돌이 벽옥임을 주목하세요.

돌은 단지 한 수준에 불과하며 오히려 도시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광채를 묘사하기 위한 다소 명백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이 열두 돌의 두 번째 기능은 앞서 몇 구절에서 본

다른 돌 이미지와 금과 마찬가지로 돌이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의 대조를 더욱 뚜렷이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은 묘사된 장소였습니다. 17장 3절에 바벨론 음녀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은 돌과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가 가치 있게 여기고 수입한 화물의 일부가 금, 은, 보석이었던 18장과 12절과도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조는 로마가 자신의 사용과 이기적인 사용을 위해 착취하고 왜곡한 것,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또는 반영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증하자면, 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경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로마의 사치에 참여하지 못하여 희생한 모든 것을 보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가난하고 로마의 손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평판이 없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는 여기 새 예루살렘의 한 수준에서 바벨론 창녀의 환상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보석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 성도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희생한 모든 것을 훨씬 초과하고 보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인의 사치와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무신론 행위와 상업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연관성은 우리가 이미 본 것인데, 이사야 54장 11절과 12절은 예루살렘의 회복, 즉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여러 부분, 문, 기초와 연결하고, 기초를 특정 보석과 연관시키는 귀중한 보석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묘사합니다..

이 모든 보석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것은 요한이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회복의 성취임을 암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돌은 종말론적 회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기능은 이 돌들이 성전으로서의 도시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생각에 여기 있는 돌이 분명히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돌 12개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전 주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착용해야 했던 흉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2개의 돌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그들이 12사도를 대표하는 것은 사도들이 이스라엘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신의.

이제 흉패에 있는 돌들은 기초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기초가 사도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잊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자는 신약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방언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국적, 다문화 공동체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28장과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돌들은 궁극적으로 이 뒤에 놓여 있습니다. 돌은 12지파 각각을 상징하며, 현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 구성원인 사도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본문, 에스겔서 또는 출애굽기 28장에 따르면 흉패는 도시 자체의 모양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이미 요한의 환상에서 사각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읍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돌을 연결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텍스트에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아래서 다루겠지만 이것은 돌의 부가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가적인 연관성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으로 돌아가면, 두로라는 도시에 관한 에스겔의

신탁에서 우리는 요한이 로마의 경제와 이기적인 상업, 사치와 부에 대한 탐욕을 비판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활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28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1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도 두로를 아담의 타락 상황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그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으로 너를 장식하였느니라. 루비, 황옥, 에메랄드, 감람석, 마노, 벽옥, 사파이어, 청록색, 녹주석이니라. 당신의 세팅과 마운팅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창조되던 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수호 그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세웠음이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계셨습니다.

당신은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아담이 대제사장의 흥패에 달린 12개의 돌을 달고 있는 동산의 제사장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을 비교할 때, 이 모든 돌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 텍스트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영어 번역을 제공하지만, 나는 이 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돌에 관해 저자가 상상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연관성에 더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제사장의 흥배의 돌들이 아담과 에덴동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7장과 28장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요한의 비전에 대한 모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가 이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요한은 출애굽기 28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겔 28장도 옆두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돌들은 아담과 에덴동산 모두와 연관될 것입니다.

사실 다른 본문, 특히 묵시적인 본문에서는 에덴동산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담이 제사장으로 기능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동산을 가득 채웠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텍스트는 에녹의 이름이 붙어 있는 다른 책인 3rd Enoch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녹서 3장 5장 1절입니다. 거룩하고 찬송받으실 이가 동산에서 첫 사람을 쫓아낸 날부터 쉼기나는 생명나무 아래 그룹에 거하셨습니다. 섬기는 천사들은 온 땅에 그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무리와 무리와 대대를 이루어 하늘에서 소집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세대의 첫 사람이 에덴동산 문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쉼기나의 광채로운 형상과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치는 쉼기나의 광채를 보려 함이니라. 여기서 멈추겠지만, 이 본문과 다른 본문에서는 에덴동산도 성전의 성막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거하는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내 생각에 다른 성구들은 아담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에스겔 28장은 에덴동산에서 흥패를 달고 대제사장의 흥패를 입고 에덴동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담의 제사장 연합을 보여줍니다. 사실, 흥미롭게도 Pseudo-Philo라는 책이 있는데, 읽고 싶으시면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 필로(Pseudo-Philo)의 한 전통에 따르면 흥패에 있는 돌은 실제로 에덴동산에서 가져온 것이며,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 마지막 시간까지 방주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돌들이 에덴동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숨겨져 있었다가 장차 드러날 것이라는 종말론적 함의에 주목하라. 이제 마침내 요한의 환상에 돌들이 드러났습니다. 성경 외부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본문은 우리가 이미 관심을 기울인 본문이며, 그것은 콤란 본문 중 하나인 콤란 공동체의 사해 두루마리에 있는 이사야서 주석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주석 중 하나에서 흥미롭게도 이사야 54장에 대한 이사야 주석에서 말했듯이, 콤란에서 온 그 주석의 저자는 회복된 예루살렘, 문, 성벽, 기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돌을 콤란 공동체의 창립 멤버와 동일시합니다. 마치 자신의 공동체에서 공동체 설립의 정당성, 즉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예언적 기대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흥미로운 것은

쿰란 공동체의 저자입니다. 쿰란 본문의 이사야 54장에 대한 주석에서는 기초와 기타 돌을 공동체의 창립 구성원과 동일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54장의 돌 중 하나와 그 그룹 중 하나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던 두 개의 돌인 우림과 둠밈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쿰란 본문에는 이사야서 54장을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돌과 연관시키는 예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이 한 일입니다. 이사야 54장은 돌의 기초를 묘사하는데, 이는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돌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본문입니다.

이제, 쿰란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했던 것과 유사한 움직임으로, 나는 그가 그것을 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 요한은 또한 흉패에 있는 돌들을 이사야 54장의 특징과 기초와 연관시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이사야 54장과 연관되어 있는 흉패의 돌들과 요한이 또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돌들과 연관시켜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사람들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처로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 창조 안의 새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성전 이미지와 에덴동산 이미지 외에 다섯 번째 연관성은 우리가 이 돌들을 신부 장식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결혼 이미지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21장과 2절에서 요한이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여 남편을 위한 신부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보석들, 기초를 이루는 보석들은 신부 장식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제 신부는 종말론적인 모든 영광 가운데 신부로 준비되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도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로서의 도시의 광채를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다양한 연관성이 로마 바빌론과 대조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상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로마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바벨론의 손에 희생된 것은 돌이 재건된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말론적 회복을 암시하고, 여기에 돌의 존재는 종말론적 종말적 회복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적 성격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의 성전성, 이제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의 흉패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에덴동산과 낙원 연합회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신부 장식의 일부입니다. 이 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죄송합니다. 4번으로 돌아가서 흉패와 제사장의 연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8절과 21절에서 보석에 대한 설명을 괄호로 묶은 바로 전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을 도시의 구성으로 언급한 것은 다시 한 번 출애굽기 28장과 금으로 장식된 다른 곳에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며 아마도 흉패 이미지와 또 다른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도시의 주민, 즉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도시에 들어가는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도시의 한 가지 특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이미 우리는 도시의 건축적 특징과 도시의 구성을 통해 도시의 주민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다른 특징은 21절에 나오는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로마 도시에는 도시의 중심을 대략 내려가는 큰 거리나 큰 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업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John이 여기에서 금으로 만들어진 거리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으로 포장된 거리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며 거리는 단순히 상업과 왕래를 위한 모든 도시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거리에 추가로, 또는 어쩌면 대안으로, 여기서 단어는 전형적인 그리스-로마 도시에 있었을 넓은 장소나 광장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는 1세기까지 이어지는 시대와 이상적인 그리스-로마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반영하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도시를 통과하는 거리 또는 도로였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의 정사각형 모양과 대칭성인데, 이는 그리스 로마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좋은 물 공급을 갖는 것인데, 22장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주로 구약성경 본문과 다른 유대 묵시록 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비전을 구성하고 있지만 동시에 요한은

이상적인 그리스 시대와 유사한 도시에 대한 비전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마 도시.

그리고 그가 2장과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로마 도시, 소아시아 지방, 로마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상적인 그리스-로마 도시의 진정한 성취는 로마의 어떤 도시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오직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상된 대로 새 예루살렘에서만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새 예루살렘은 구약이 기대했던 것,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했던 것의 성취입니다.

동시에 요한은 그것을 사람들이 이상적인 그리스-로마 도시에 속한다고 이해했던 이상의 성취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John의 도시는 그것을 능가합니다. 요한은 독자들이 자신이 속한 도시나 그리스-로마 도시, 확실히 로마가 아니라 요한의 환상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서만 희망과 열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7절로 넘어가서 그 도시의 주민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한 수준에서 불과 도시 자체가 신부라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거민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세 개의 다른 거주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 두 가지는 분명하고, 그 중 하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셋째는 민족들입니다. 우선, 22절은 적어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놀랍습니다. 묵시적인 본문, 즉 유대인의 묵시적인 본문에 익숙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22절에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비록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요한이 에스겔의 환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는 성전의 측량과 환상에서 일종의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요한은 일종의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이 도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도시 안에, 도시의 중심에 있는데,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과 기타 유대 묵시록에 따르면, 그곳이 그리스-로마 도시이든 복원된 예루살렘이든 도시 내부에서 성전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 묵시록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일부로 성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존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가 성전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 바로 그 곳에서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물리적 성전인 물리적 성전이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은 성전 언어인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를 취하여 그것을 도시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이 있지만 도시 전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도시 안에는 별도의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성전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애초에 성전이 필요했던 바로 그 일, 성전이 필요했던 바로 그 일이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의 일부인 죄와 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죄와 악,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공개적으로 거하실 수 없도록 만든 죄와 악은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19장과 20장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광범위한 일련의 심판 장면에서 모든 죄와 모든 악이 제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악과 죄로 부패한 옛 창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제거되었고, 죄와 악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직접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이미지는 도시 전체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직접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성전을 필요로 했던 것, 즉 창조에 있어서 죄와 악이 이제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성의 중심에 계시며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온 성과 온 새 창조와 함께 계시므로 요한은 태양이나 달. 왜? 첫째, 보석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빛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등잔의 이미지를 성전의 이미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빛이십니다. 어린양은 등불이시기 때문에 이곳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주입된 장소이자 성전이자 성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도시 한구석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 새 창조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요한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구약의 모든 암시를 제하면 이 환상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4장과 함께 에스겔이 환상의 첫 부분을 지배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이사야서, 특히 60-63절의 본문을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22장에서 요한은 자신의 에스겔 모델인 에스겔 47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60장과 19절에서 요한은 60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회복의 맥락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의 빛도 네게 비추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새 창조에서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제 새 창조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고 요한이 말하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요한이 어린 양을 빛을 주는 존재로 덧붙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이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 있어서 이사야 60장을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처음 세 구절로 돌아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시리라." 나는 거기에 멈춰 잠시 후에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도 그 구절을 그립니다. 3.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도시와 백성, 참으로 새 예루살렘 전체와 함께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더욱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서 이 환상을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세워지는지 주목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온 성읍과 백성과 성전에 충만하시도다. 성전이 있으면 추가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전이기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도시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5절에 "...그러므로 그 성문들은 낮에도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밤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 성문을 닫는 것이 원치 않는 방문객이나 적군을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하므로 밤이 없으므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느니라.

종말론적 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 묘사. 도시 주변에 성벽이 있지만 성문이 없거나 적어도 결코 닫히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마치 벽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성벽이 예루살렘이든 다른 1세기 도시이든 전형적인 도시의 일부를 나타내고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문은 단순히 도시의 일부일

뿐입니다. 도시이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매우 안전하여 문으로 들어오는 해악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거나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여기서 주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서 오는 빛, 구약성서의 다른 곳,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찾을 수 있는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빛은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는데, 그것은 빛이 열방을 끌어들이는 기능입니다. 24절을 주목하십시오: 민족들이 그 빛으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임이니라. 26절,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가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두 구절은 아마도 첫 번째 구절인 24절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빛은 나라들을 끌어당기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안전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방문객이 들어올 염려가 없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26절 때문에 열방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문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요한이 다시 한 번 이사야서 본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4장은 특히 이사야 2장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이사야 2장과 2절의 시작 부분에 있는 마지막 때의 구원에 대한 환상이나 진술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열방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땅이 산들 위에 솟아오르고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모여들리라.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를 소개합니다. 이는 요한이 이 마지막 비전에서 이사야를 그토록 크게 끌어들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종말론적 구원에 열방이 포함되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리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분은 나라들 사이에 재판을 하시고 분쟁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거기에서 멈추겠지만,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걷기 위해 도시로 모여드는 열방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그 본문을 반영하면서 열방이 그 빛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걷는다는 이미지는 바로 이사야 2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여기 있는 열방이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방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도록 개종하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의 이사야서 60장에서도 같은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빛을 새 예루살렘과 연관시키고, 60장에서 현재 그 성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연관시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은 다음 3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나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한 후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당신 위에 나타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열방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새벽의 빛으로 나아오리라. 또한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보고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두근거리고 부풀어오를 것입니다.

바다의 부를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민족들의 부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6절, 낙타 떼가 네 땅에 올 것이라.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과 스바의 모든 낙타들이 금과 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11절에 보면, 여러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결코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암시한 본문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 즉 그들의 왕들이 개선 행렬을 이끈 나라들의 부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빛은 열방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열린 문은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2장의 성취로 열방의 유입을 받아 그들의 부를 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제기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나라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밖에 있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묘사됩니다.

이 나라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지금은 분명히 들어오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장의 끝에 도달하면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이것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 심판의 생존자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간단히 말해서, 싸우려고 모인 모든 나라들과 땅의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마지막 사람과 종과 자유인과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끝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까. 모든 악, 모든 죄, 짐승과 운명을 같이한 모든 사람은 이제 포괄적인 마지막 심판 장면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나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너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열방이 포함된다는 것은 요한의 환상의 이 부분이 이사야 60장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의 회복 프로그램의 일부는 열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를 인용해 왔으며, 따라서 열방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사야 60장과 이사야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의 환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방, 모든 족속, 언어, 방언 및 나라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요한의 묵시록의 지배적인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사야 60장에 대한 환상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사야의 회복, 즉 종말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따른다면 열방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이것이 그의 주제인 각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더라. 두 번째 관찰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치 그들이 새 창조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 후에 이제 그들은 그 바깥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마침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언어는 아마도 이사야의 언어의 일부일 뿐이며 요한은 우리가 그것을 마치 그들이 어느 시점에 밖에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새 창조물이 도착한 후에 그들은 밖에 있었다가 이제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들어가는 일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루어지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밖에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는지 우리에게 말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언어를 엄격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새 창조의 어딘가에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더 나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불못에서 형벌을 받고 이제 불못을 떠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나라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요한은 단지 이사야서의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엄격한 지리적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이사야서 2장 60장을 언급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질문은 이 나라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년 말부터는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남은 국가는 없습니다. 땅의 왕은 없습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들과 땅의 왕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당한 자들의 말이라 곧 짐승에게 미혹되어 짐승과 교제하고 짐승과 결부시키고 그 짐승과 간음한 자들의 말이라 땅의 왕들과 열방의 왕들이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19장과 20장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20장 끝에는 분명히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의 빛에 이끌려 열린 문으로 와서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들의 재물을 거기에 바치고 이제 와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열방과 왕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즉, 분명히 이들은 개종하여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고 요한계시록 21장과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 즉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9강 신부 새 예루살렘이 계속됩니다.